

라운딩의 계절...유통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 행사

이마트, 28일까지 골프 대전...골프클럽 가입시 할인권 증정 등 광주 신세계, 골린이 여성 골퍼 겨냥 브랜드 입점...사은품 증정

유통업체가 골프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 행사를 연다.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가을 골프 대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 모바일 앱에서 할인권을 내려받은 뒤 골프 전문점이 입점한 이마트 매장에서 골프용품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점, 봉선점, 여수점에 골프 전문점이 들어섰다.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여성 골퍼 입문자를 위한 마루팡 베리티 여성용 폴세트는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시중 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시니어 골퍼에게 인기 있는 켄시오 프라임 로얄에디션4 모델은 20% 할인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골프 대중화 바람이 이어지면서 1년 전부터 단독 초저가 상품을 기획해왔다"며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국제 물류대란으로 인한 원부자재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골프용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또 11월23일까지 석 달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골프클럽' 시즌2 회원 모집한다.

지난 3월 선보인 시즌1 멤버십에는 3만명의 고객이 신규 가입했고, 최대 50% 할인을 받았다. 그 덕분에 올 상반기 이마트의 골프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 늘었다.

이마트 '클럽' 멤버십은 고객별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할인권을 증정,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는 골프클럽 시즌2 시작을 기념해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우선 기간별로 최대 20% 할인권을 지급한다. 15일까지는 골프 장갑 전 품목에 대한 20% 할인권 3장(최대 5000원 할인)을 준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골프공 모든 품목 20% 할인권 3장(최대 5000원 할인)을 증정한다.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는 골프화 전 품목 10% 할인권(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또 골프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제공하는 도장을 모으면 골프 우산과 골프공 등 사은품을 나눠준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담당자(바이어)는 "추석이 지나고 골프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이 오면서 이마트 단독 초저가 상품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2 가을 골프 대전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사전기획 등 다양한 매입혁신을 통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MZ 세대 여성 골퍼들의 취향을 겨냥한 골프 의류·용품 임시 매장을 신관 지하 1층에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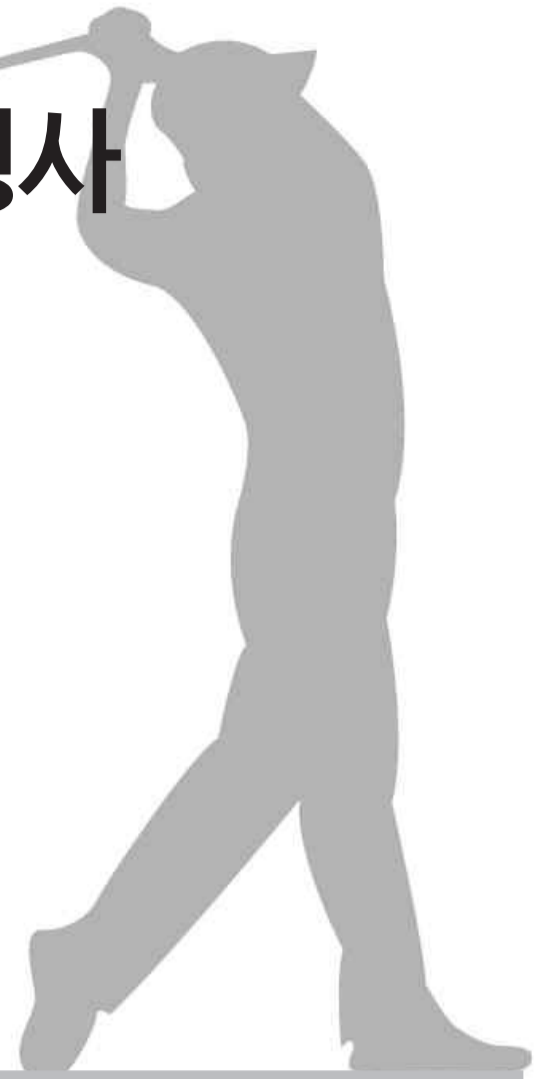
'플레이블'(P.LABLE) 브랜드 매장에서는 골프와 테니스 볼링 등 다양한 여성 스포츠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22일까지 모든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개인 방역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민들의 스포츠·오락·여가 부문 씬씀이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스포츠·오락·여가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8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61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지역민들의 스포츠·오락·여가 부문 신용카드 소비액은 2020년 3008억원, 2021년 3211억원, 올해 3821억원 등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카프로 가을 분위기 '물씬' 14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3층에 새로 문을 연 스카프 임시 매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스카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물가에 '반값 열풍'...치킨 이어 탕수육·도시락 인기

롯데마트, 7일간 3만6000개 팔려 이마트24, 한달간 도시락 할인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외식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체가 '반값 치킨'에 이어 '반값 탕수육' '반값 도시락'을 내놓으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반값 치킨'에 이어 '반값 탕수육'을 내놓으며 초저가 판촉전에 들어갔다.

롯데마트가 이달 말 선보인 7000원대 '한통가득 탕수육'은 이달 1~7일 일주일 동안 3만6000개 이상 판매됐다.

한통가득 탕수육 인기로 롯데마트 델리(즉석조리식품) 코너의 탕수육 매출은 전달 동기보다 7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역시 7000원대에 할인 판매된 '7분 한마리 치킨'도 3만5000마리 이상 팔리면서 전달 같은 기간보다 13배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한 달 동안 '한가위한상도시락'을 행사 카드로 구매할 때 50% 할인한 4000원에 판매한다.

이 도시락은 모듬전과 삼색나물, 소불고기, 잡채 등 명절 대표 음식으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

발달장애인·가족 경제적 자립 돕는다



중기부, 광주에 특화사업장 개소 스마트팜 식물재배실 등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교육·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광주 광산구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지상 2층 규모의 실내 친환경 영채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팜 식물재배실은 1·2층을 합쳐 330㎡(100평) 규모로, 재배판을 5단으로 설치해 실제 재배면적은 1650㎡(500평)이다.

구축과 운영에 총 30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주 재배작물은 샐러드 채소인 프리라이스(엽채류)로 45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연간 17t 생산을 기준으로 9000만원(도매가 기준) 안팎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웅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지역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입주 기업 5개사는 이달 중 각자 개인사업자를 등록, 올 말까지 공동생산 및 배분을 위한 생산자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는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등 실무 지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에게도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산구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원을 기부, 이 자리에서 향후 장애인기업의 유통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협약서를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와 교환했다. 또 (주)에이트는 광주 광산구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에 1억원의 현물기부와 함께 생산물에 대해 전량 구매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보호받는 대상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광산구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